

[사회]

광주 야구계 참담... 암울...

'네 모녀 피살' 선후배들 "상상조차 못했다" 충격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는데..." 전 해태타이거즈 프로야구 선수인 이호성씨가 엄격한 일가족 피살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뒤 투신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주 지역 야구계가 공황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이번 사건에 대해 '확실한 것은 없지 않느냐'며 말을 아꼈던 야구계 인사들은 용의자인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실종자들의 시신이 발굴되자 이씨에 의한 살인을 가정사 실로 받아들였다.

실종됐던 네 모녀가 끔찍한 사체로 발견되면서 그 충격은 더 커지고 있다. 이씨와 절친한 사이였던 김우현 광주시야구협회장은 "계속된 사업 실패로 호성이가 연락을 피해 얼굴 본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

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했다"며 "충격이 커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있다"며 말을 흐렸다.

이씨의 고교 1년 후배로 함께 운동을 했던 광주시야구협회 황석진 전무이사는 "엄하면서도 후배들을 많이 챙겨주던 카리스마 넘치는 선배였다"며 "성공해서 꼭 야구계에 일조하겠다고 제기를 노렸는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

는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사건이 일파만과 커지면서 KIA타이거즈는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KIA의 한 관계자는 "해태의 마지막 주장이자 프랜차이즈 스타로 큰 사랑을 받았던 선수라 충격이 큰 것 같다. 하지만 자꾸 야구선수라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며 사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건이 조속히 해결돼 야구계,

특히 우리 지역 야구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한 관계자는 "해태의 마지막 주장이다"고 말했다.

KIA와 삼성의 시범경기가 진행된 11일 대구구장의 분위기도 뒤숭숭한 모습이었다. 삼성에는 선동열 감독을 비롯한 한대화, 김광호, 조계현, 정회열 코치 등 해태 유니폼을 입고 이호

성과 함께 선수생활을 했던 이들이 많다. 특히 유일한 동기였던 정회열 코치는 휴대전화 착신금지를 한 채 일절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이역중 KIA 매니저는 "좋지 않은 일인데다 프로답게 경기에 충실해야 보니 말들을 자제하고 있지만,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화려했던 프랜차이즈 스타의 끔찍한 몰락을 지켜본 팬들도 KIA타이거즈의 홈페이지에 잇달아 참담한 심정을 올리고 있다. 팬들은 이씨의 범행이 확정적인 것으로 드러나자 평소 좋아했던 스타의 명복을 빌 수도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온 이씨 시신

서울 벽제화장터에서 화장될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 마포구 김모씨 가족 살해용의자 이호성씨의 시신이 11일 오후 극비리에 광주시 북구 M장례식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호성씨 빈소 광주에 극비리 마련

■ '네 모녀 피살' 이모저모

○ 서울 마포구 창전동 김모(45·여)씨 일가족 4명 피살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던 이호성(41)씨의 빈소가 광주에 극비리에 마련.

11일 오후 광주시 북구 M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이씨의 형과 지인, 야구인 등 30명만이 참석. 이씨의 시신은 이날 오후 3시 안착되어 있던 서울 순천향병원을 출발, 3시간 만인 오후 6시에 광주에 도착.

이씨의 유족들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유가족과 시신이 따로 광주로 이동했으며, 당초 이씨의 시신은 서울 벽제화장터에서 화장될 예정이었으나 유족들이 광주에서 장례를 치르기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날 장례식장 출입문에는 고인의

이름과 상주 등 안내문이 전혀 부착돼 있지 않았고, 빈소에는 이씨의 영정조차 올려지 못하는 등 세간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

오늘 오후 화장키로

○ 이씨의 빈소는 평소 절친했던 지인 등 30명이 찾아 조문을 했으나 전체적으로 극히 침울한 표정. 다른 빈소를 찾은 장례객들도 뒤늦게 이씨의 빈소라는 것을 안 뒤 할말을 잃은 채 하루아침에 스타플레이어에서 살인범으로 전락한 이씨의 추락에 쓸쓸한 표정을 짓기도.

한편 유가족들은 이씨의 부친 묘소가 있고 김씨 일가족이 암매장됐던 이호성 동면 모 교회의 공원묘지에 이씨의 시신을 매장하려고 했으나 고

회 측의 반발로 무산됐으며 결국 12일 낮 화장할 계획.

화순경찰 시신 발굴 개가

○ 화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이 수사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일가족의 시신을 찾아내 타 경찰서의 부러움을 사기도. 수사팀은 실종 20일만 지난 9일 언론보도를 통해 실종자의 휴대폰이 화순군 남면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뒤늦게 수사에 합류. 그러나 수사주체인 서울 마포경찰이 수사공조 문의조차 제때 대답해 주지 않는 등 시종일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바람에 수사에 난항을 겪었으나, 시민의 제보를 통해 시신을 찾는 데 성공.

/인현주·이종행기자 ahj@kwangju.co.kr

광주서도 내달초 국민참여재판

광주지법 준비 절차 중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돼 법원이 공판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여·20)씨와 국선변호인이 지난 7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날 이 사건을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에서 국민참여재판 사건 전담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현)로 재배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판준비 절차에 회부했으며, 공판준비 절차를 통해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하고

각자의 입증계획을 정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배심원 선정 등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초께 공판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심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 후보자 예정명부(광주의 경우 6천명)에서 무작위로 뽑힌 후보자 가운데 재판장·검사·변호인의 적격성 판단을 거친 사람들로 구성된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2시에 광주시 북구 운암동 모 원룸 건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정열거린다"며 생후 18개월 된 딸의 목을 돌려 지난 1월 22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2010년까지 학교 17개 신설

수원지구에만 10개교

광주에 2010년까지 17개 초·중·고교가 신설된다. 또 2010년 광주 구 도심에 위치한 광주여고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로 옮겨지고, 동구 지원동의 무등중과 지원동이 통합되며 현재의 무등중으로 재배치된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9월 수원9초등학교(가칭)가 세워지는 것을 시작으로, ▲2009년 13개(초6개·중4개·고3개) ▲2010년 3개(초1개·중2개) 등 총 17개의 초·중·고교가 신설된다.

이를 신설학교는 수원지구, 하남2지구, 진월지구, 용두주택단지 등 대단위 신축단지개발지역에 집중돼 해당지역 초등학교의 과대·과밀학급 해소와 고교생의 통학여건 개선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별로 수원지구에 가장 많은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등 10개의 학교가 설립되고 ▲하남2 지구에 산정초, 경암초, 산정중 ▲진월동에 진제초 ▲진월지구에 진월중 ▲용두주택단지에 용두중 ▲문흥지구에 오치초 등이 각각 신설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차량 농로 추락 둘 사망

11일 오후 5시20분께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도로에서 신모(40)씨의 무쏘스포츠 차량이 10m 아래 농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신씨 등 2명이 숨졌다.

경찰은 커브길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양=김훈호기자 chkim@

아침 안개 조심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아 대체로 맑았다.

광주	구름 조금	5~19°C
목포	구름 조금	6~17°C
여수	구름 조금	8~17°C
안동	구름 조금	5~18°C
대구	구름 조금	1~20°C
울산	구름 조금	0~18°C
대전	구름 조금	0~19°C
충청	구름 조금	3~19°C
전남	구름 조금	2~20°C
전북	구름 조금	2~18°C
경남	구름 조금	2~19°C
경북	구름 조금	4~19°C
충북	구름 조금	1~20°C
충남	구름 조금	6~14°C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05:20 썰물 < 10:24
여수 밀물 < 11:55 썰물 < 05:51

▲해돋이 06:47 ▲해질 18:37 ▲달돋 09:07 ▲달짐 --:--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날씨						
최저/최고	7/16	4/15	3/18	3/17	4/15	4/15

신임 황희철 광주지검장 인터뷰

"예측 가능한 법적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살리기 검찰도 동참"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가 경제살리기인 만큼 검찰도 이런 국민의 여망을 받아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희철(51) 신임 광주지검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고심 공개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공판감사로 나서기도 했던 김태환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반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김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들며 “검찰 수사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모든 수사는 철저하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선 “취지나 정신은 바람직스럽지만 임법과정에서 간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배심재판의 본류는 유·무죄 판단인데 배심원들이 양형 의견을 내는 형태로 진행돼 원래 취지에 어긋나거나, 관용 위주의 판결을 양산할 우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원과 검찰이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출신인 황 지검장은 조대부중·서울 경동고과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시 23회 출신으로 ▲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 범죄정보 담당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지냈다. /최권일기자 choi@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든노년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KUNIK 국제약품** http://www.kunikpharm.co.kr

코멘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습
-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피부 개선, 노년기 건강 증진
-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조절, 당뇨, 고혈압 예방
- 심혈관 질환 예방, 뇌 건강 증진, 기억력 향상
- 항산화 작용, 세포 재생 촉진, 피부 미용 효과
- 항노화, 항염, 항암 효과
- 항노화, 항염, 항암 효과

아연의 보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15 (02)1799-5000